



관중 없지만 프로야구가 돌아왔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개막이 미뤄졌던 프로야구가 5월 5일 무관중으로 정규시즌을 개막한다. 21일 오후 KIA 타이거즈와 삼성 라이온즈가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KBO리그 연습경기를 무관중으로 진행하고 있다. ▶관련기사 18면 /김진수 기자 jeans@

“노동계 없는 광주형 일자리 생각 안 해”

이용섭 광주시장 “끝까지 노동계 복귀 기다리겠다” 강조
시민사회단체 ‘노동이사제’ 대안 ‘시민이사제’ 도입 논의

광주시가 노동계의 탈퇴선언으로 좌초 위기를 맞은 ‘광주형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시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투자한 (주)광주글로벌모터스 주주들이 사업 정상화를 촉구한 최후 통첩 시한이 임박할 것으로 다가옴에 따라 노동계의 복귀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지역 경제계와 정치권, 시민사회단체 등도 노동계를 향해 ‘일단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14면)

이용섭 광주시장은 21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노동계가 없는 광주형 일자리는

생각할 수도 없다”며 노동계와 함께 가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미 노동계의 요구사항 중 광주시에서 할 수 없는 부분 (노동이사제)을 제외한 모든 요구를 최대한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혔다”면서 “이외에도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있으면 노사민정이 다시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면 될텐데, 만남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특히 “광주형 일자리는 단순히 자동차 공장을 짓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침체한 경제까지 되살릴 수 있는 사업”이라며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주에도 내면 이면 당장 양질의 일자리 1000개가 만들어질 수 있다. 끝까지 노동계의 복귀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겠다”고 강조했다.

광주경영자총협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노동계 대표인 한국노총 광주본부의 광주형 일자리 참여 복귀를 호소하고 나섰다. 광주상인연합회도 지난 20일 성명을 내고 “노동계의 노사민정협의회 즉시 복귀”를 촉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광주당선자들도 지난 17일과 19일 광주시와 한국노총 광주본부를 차례로 방문, 현재 상황을 듣고 문제 해결에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그동안 광광세에 있던 지역 시민사회단체들도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되살리기 위해 힘을 보탠다. 광주 시민사회단체 관

계자들은 22일 광주시청에서 이용섭 광주시장과 간담회를 하고 광주형 일자리 해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들은 최근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불참을 선언한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방문한 데 이어 광주시와 만나 각자의 입장을 듣고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일단 노동계에 “노사 상생이라는 광주형 일자리의 본래 취지가 지켜져야 한다는 데 지역사회가 모두 공감하고 있다”며 “대화의 장으로 나와 얽힌 문제를 풀어 나가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시민사회단체에선 ‘노동이사제’ 대안으로 ‘시민이사제’ 도입 등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靑 “김정은 위원장 정상적 활동...北 특이사항 없다”

청와대는 2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과 관련, “현재까지 북한 내부에 특이 동향이 식별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2면)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과 관련해 확인해 줄 내용이 없다”

면서 이같이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을 뒷받침할 만한 특이 동향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현재까지 김 위원장이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노동당·군부·내각도 비상경계와 같은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

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김 위원장이 지난 15일 김일성 주석의 생일(태양절)에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에 불참한 배경은 예외주 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앞서 미국 CNN방송은 지난 20일 (현지시간) 미국 관리를 인용해 “김 위원장이 수술 후 심각한 위험에 빠진 상태라

는 정보를 미국 정부가 주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반면 로이터 통신은 이날 북한과 소통하는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관계자를 인용해, “김 위원장이 현재 위독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CNN 방송 보도에 대해서 “정보 수준을 미국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내용”이라며 “공식적으로 언급할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평동 3차 산단 투자유치 ‘꼼수’

입주기업에 땅값 추가요구 하고 녹지면적까지 떠넘겨

기업들 법적대응 논의

광주시가 첫 민간투자 방식으로 조성한 평동 3차 산업단지 분양과정에서 입주기업에게 200억원대의 땅값을 추가로 요구했다가 법적소송(광주일보 2020년 3월 25일자 1면)에 휘말린 데 이어 또다시 100억원 규모의 생태(녹지)면적까지 떠넘기는 ‘꼼수’를 부려 논란이다.

기업들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지원은커녕 수익원에 이르는 추가 땅값에다 녹지 등 생태면적까지 확보해야만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전국 산업단지 중 입주기업에게 대규모 생태면적 조성 부담을 떠넘기는 곳은 없었다. 행정기관에 사기를 당한 기분”이라고 말했다.

도 일부 기업은 생태면적을 적용할 공간조차 마땅치 않아 애를 태우고 있다.

입주기업인 제트스타(주) 관계자는 “산단은 건폐율이 80%까지 허용되는데, 생태면적률을 17.5%나 적용하면 의무 주차공간조차 확보할 수 없다”면서 “시에선 공장 지붕이나 벽면 녹화를 하라고 하는데, 공장 건물은 모두 철관으로 만드는 탓에 건물 녹화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도 이 같은 부작용 때문에 관련 지침을 변경해 생태면적률을 기존 30%에서 20%로 낮췄지만, 광주시는 산단계획 수립 과정에서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했다. 이 이유 등으로 기존 30% 기준을 그대로 반영,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평동 3차 산단 입주 기업대표 20여명은 22일 평동 3차 산단 내에서 긴급 총회를 갖고 평동 3차 산단을 조성한 광주시와 (주)한양이 1대 주주인 특수목적법인(SPC) (주)평동3차산단개발을 상대로 턱없이 높은 토지비용 인상과 생태 면적 떠넘기기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시홈페이지에 고시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며, 기업들은 “고시사실을 알지 못했고, 설명조차 듣지 못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입주기업 사장은 “산단 입주 기업은 생태면적을 직접 확보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랬던 적이 단 한번도 없기 때문”이라며 “기준에 없는 틀을 적용했으면, 최소한 계약 때 설명 정도는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 광주시를 믿고 투자했는데 땅값 인상에 이어 두 번이나 당하고 보니 바보가 된 기분”이라고 말했다.

기업들은 이날 선거약 후 공장착공 시점에 3.3㎡(평당)당 6만6000원을 추가로 기금 인상한 점과, 입주 업체마다 생태면적을 17.5%씩 확보하도록 한 부분 등에 대해 적법성 여부 등도 살펴본다.

기업들은 이날 선거약 후 공장착공 시점에 3.3㎡(평당)당 6만6000원을 추가로 기금 인상한 점과, 입주 업체마다 생태면적을 17.5%씩 확보하도록 한 부분 등에 대해 적법성 여부 등도 살펴본다.

평동 3차 산단과 달리 바로 옆 평동 1, 2차 산단은 물론 전국 대부분의 산단은 생태면적을 모두 포함해 조성공사를 하고 있다. LH도 최근 광주 빙그린 국가산업단지 내 산업시설 용지 102필지를 평당 82만 원씩 선분양 중인데, 입주 업체가 조성해야 할 생태면적은 없다.

LH 관계자는 “생태면적은 산단조성 공사 때 모두 확보하는 게 원칙”이라며 “만약 업체별로 조성해야 한다면, 이례적인 만큼 계약 과정에서 반드시 설명을 해야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도 생태면적을 적용이 과도하다는 판단에 따라 조만간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재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시는 (주)평동3차산단개발을 설립하고 2017년 총사업비 2353억원을 투입해 광산구 연산동 일대에 117만8000㎡ 규모의 평동 3차 산업단지를 조성했는데, 녹지 등 생태면적 반영 등을 놓고 입주기업과 갈등을 빚고 있다.

확보해야 할 녹지 등 생태면적률은 30.58%로, 평동3차산단개발은 조성공사를 통해 19.5%만 확보했다. 나머지는 입주기업이 분양면적의 17.5%씩을 자체 조성토록 했다.

90여곳에 이르는 입주기업에게 생태면적률 17.5%를 적용할 경우 부지비용만 1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그나마

는 정보를 미국 정부가 주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반면 로이터 통신은 이날 북한과 소통하는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관계자를 인용해, “김 위원장이 현재 위독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 코로나 알바 자리도 ‘지인 찬스’ ▶6면
- KIA 투수 브룩스 ‘선발 OK’ ▶18면
- 임영진 교수의 마한, 주거생활 ▶22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츰츰하게 쌓은 레이어로
빈틈없는 탄력각을 세우다

설화수 자음생에센스

얼굴 구석구석에서 전에 없던 그림자가 보인다면
이제, 탄력에 레이어를 쌓아야 할 때
레이어가 쌓일수록 피부는 탄탄하게 차오르니까
탄력을 촘촘하게 레이어링하는 고농축 진세니스피어™ 캡슐에너지로
빈틈없는 탄력각을 세우세요

Sulwhasoo

Sulwhasoo

*설화수 플레그리스토퍼 및 천국 백화점, 이모레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www.sulwhasoo.com • www.instagram.com/sulwhasoo_official • 플레그리스토퍼: 02-541-9270 • 고객센터: 080-023-5454 (수신자 요금부담)